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삼지연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표준단위로 꾸릴데 대한 강령적인과업을 제시하시고 해마다 군에 찾아오시어 군사업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자농사를 보다 높은 과학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을 로해대책하시기 위하여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농장의 제1작업반 감자포전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해마다 7월이면 감자역병과 장마철피해로 감자수확고에 영향을 주고있는데 올해 형편은 어떤가고 물어주시면서 농업부문에서 북부고산지대 감자농사에서 제일 난문제인 낮은 기온과 병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농업기술적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작업반의 농기계와 트랙터들을 보시면서 보유실태와 가동률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에 군과 농장에 와서 제일 관심하며 알아보려고 한 문제가 감자농사의 기계화비중과 수준이 어떠한가 하는것이였다고 하시면서 농장의 종합적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겠다고, 지금 농업부문에서 20여년전에 장만해놓은 농기계를 기계화의 본보기로 내세우고있는데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현대적이



며 능률높은 농기계들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농장일꾼들이 견문을 넓혀 세계적인 농기계발전추세도 잘 알고 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감자종자저장고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자종자저장고의 온도와 습도, 탄산가스의 농도를

자동적으로 측정 및 조종하여 감자종자저장을 과학화할수 있는 환경자동조종체계를 도입한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감자발전성이 늘어남에 맞게 종자량을 잘 타산하여 능력을 확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자농사에서 기본은 종자인것만큼 감자종자생산과 보관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채종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정보당 소출이 높은 감자품종을 육종도입하는 사업과 함께 감자가루생산공장도 일떠선것만큼 식품용도에 맞는 감자품종도 선택하여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산성만 생각하면서 몇가지 우량품종을 모든 농장들에서 일률적으로 심지 말고 맛이 좋은

며 감자가공품생산에서 질을 보장할수 있는 다양한 품종들을 도입하여 감자생산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농장을 돌아보시면서 삼지연군 중흥리에 소재지마을을 잘 꾸리기 위한 구상과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신 중흥농장과 같은 령도업적단위들부터 먼저 잘 꾸리고 그 경험에 토대하여 군안의 모든 농장들을 점차적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에서 읍지구를 꾸리는데만 매달리지 말고 농장마을들을 본격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농장을 꾸리는데서 새로운 기준을 창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최근 농업부문에서 이렇다할 본보기를 꾸려놓은것이 없나니 20여년전 대상을 표준으로 내세우고있는데 발전하는 현실과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기준이 될수 있게 삼지연군과 군안의 농장들을 현대문명이 융축된 리상군, 리상농장으로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20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땅에 감자산을 높이 쌓아 량강도의 감자농사문제로 그토록 마음쓰신 장군님의 념원을 꼭 풀어드리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감자가루생산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 풍족하고 다양하게 하기 위하여 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에 수천(千)톤의 감자가루생산공장을 꾸릴데 맞게 감자가루를 원료로 하는 년간 2, 000(千)톤의 감자가공식품들을 전문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공정을 꾸릴 결심을 안으시고 현지에서 대책문제들을 협의하시기 위하여 공장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자가루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을 건설한 이후 만부하를 걸어보지 못하였는데 올해 수확하는 감자를 가지고 감자가루를 팡팡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감자가루와 감

자가공품들을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자가루를 가지고 국수, 우동, 짜배기, 편튀기, 파자, 영양쌀을 비롯한 다양한 식료품들을 만들기 위한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갖추고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감자가공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감자가루와 여러가지 감자가공품들을 생산할수 있는 표준공장을 설립한 경험과 설계에 기초하여 북부고산지대의 감자산지들에도 현대적인 감자가루생산공장들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생산된 감자가루보관정형을 료해하시고 보관조건을

잘 갖추어 감자가루의 품질을 철저히 보장하며 과학적인 품질검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생산시설과 설비를 정상적으로 애호관리하고 식료품생산공정으로서의 충분한 위생환경을 보장하며 로력관리를 실리적으로 짜고들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 새로 건설한 우리 식의 순환비등층보이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설계와 기술, 우리의 로력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건설한 순환비등층보이러에서 적은 석탄으로 생산공정에 필요한 증기를 충분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무리 첨단 기술을 받아들인 현대화된 설비라고 하여도 우리 나라 형편과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고 랑패를 볼수 있다고 하시면서 일꾼들이 공장건설초기 기술신비주의에 빠져 경제적라산이 맞지 않는 설비를 차려놓고 생산에 지장을 준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제는 공장의 모든 생산공정이 완벽하게 갖추어진것만큼 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감자생산을 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의 감자농사정형을 료해하시고 감자과종을 적기에 질적으로 하고 감자발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정보당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자를 수확하는족족 수송하기 위한 감자수송대를 조직하는데 필요한 료전기재들을 당에서 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한알의 감자도 허실하지 않고 제때에 실어들여 공장에 감자원료를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감자가공공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 대한 당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공장을 능력대로 만가동운영함으로써 당에서 마음먹고 꾸려준 공장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참담하게 이바지하는 공장으로서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배개봉전망대에서 삼지연읍건설총계획안과 삼지연읍읍조감도를 보시며 해설을 들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망적으로 삼지연읍읍건설계획에 삼지연못까지 확대개발하는 안을 포함시키는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읍읍조감도를 보시면서 건물들의 외장재와 철관지붕재의 색깔을 건물용도와 특성에 맞게 조화롭게 하며 외부 마감은 백두의 천연수림과 잘 어울리게 점잖은 색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건설을 철저히 교양구획, 살림집구획, 현대거리구획, 산업구획, 체육문화교육구획, 상업봉사구획, 관광구획으로 가르고 비준된 총계획안에 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건설을 통하여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도시의 전형을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우리 나라 산간지대의 모든 군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과정이 지방건설에서의 일대도약기로, 하나의 혁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 읍지구건설은 전당적, 전국적, 전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속에서 진행되는 사



로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명수지구를 돌아보시면서 자연지대적특성을 살리면서 협곡을 따라 여러 형태의 살림집과 건물들을 다양하게, 특색있게 배치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을 건설하면서 산림을 파괴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안된다고 강조하시면서 나무 한그루와 풀 한포기도 결코 무심히 대할수 없는 혁명의 성지라는것을 명심하고 백두산지구 생태환경을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을 꾸리는 사업을 통하여 읍지구의 면모만 일신시키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상태도 개변되게 하여야 한다고, 삼지연군이 주인으로서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온 나라가 달라붙어 꾸려준다고 하여 자립성과 자력갱생정신이 회복되면 안된다고, 삼지연군에서는 군을 공산주의리상향

업인것만큼 지도사업과 보장사업을 짜고두고 립체전, 전격전을 벌려 최단기간내에 다그쳐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낮은 북부지대의 특성에 맞는 건설공법들을 도입하며 속도일면에만 치우치지 말고 시공지도 및 감독통제를 강화하여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철도수송을

확고히 앞세워 건설적기에 맞게 건설에 필요한 물동을 집중적으로 실어날라 건설장들에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자재들을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휘성원들과 건설자재증을 절약정신으로 무장시켜 량비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 읍지구 구획별로 원림목화설계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류달리 사랑하신 북나무를 많이 심을데 대하여서도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와 답사속영소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진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에 많은 단위들이 들어와 건설하고있는데 맞게 국가건설감독기관에서 정연한 감독체계를 세우고 요구성을 최대

으로 꾸려가는 행정에서 마땅히 새 세기혁명정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동안 삼지연군건설이 많이 추진되었다고 하시면서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군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 고결한 충정의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는 건설자들에게 감사

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삼지연군당위원회 일군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당위원회 일군들을 몸가까지 부르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을 전국의 본보기군, 공산주의리상향으로 꾸릴데 대한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그 앞장에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수고와 노력을 치하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삼지연군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영광의 순간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군당일군들은 커다란 충격속에 격동된 심정을 누르지 못하며 목청껏 《만세!》의 함성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나라에서 군은 지역적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군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의 전면적부흥을 실현하는데서 매우 절

실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은 군의 안주인이며 군내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참모부라고 할수 있는 군당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을 대단히 중시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당일군들은 당중앙의 사상을 배속까지 새긴 정수분자들이 되어야 하며 군당위원회는 우리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집행을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강력한 견인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당일군들에게 참된 인민의 총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우리 장군님처럼 생각하고 받들어야 한다고, 인민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와 속이야기를 리놓을수 있는 친정집,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리박은 군당위원회가 되라고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께서도 삼지연군당위원회의 한 성원이 되어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삼지연군을 우리 나라에서 제일 훌륭하고 제일 살기 좋은 인민의 리상향으로 꾸려나가는데 이바지하자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 고향집뜨락을 꾸려가는 심정으로 군현대 화사업에 정성을 고이고 온넋을 바쳐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끝없이 이어지는 인민사랑의 길

아, 김정은 원수님! 당신께서 온 겨레의 운명입니다

(만고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주석님 서거 24돐에 올리는 헌시)

제도이첸란트동포협력회 회장 리준식

6.15통일겨레 사는 곳은 달라도
1994.7.8 비동의 그날로부터
2018.7.8 팔천철벽특십일
만고절세의 위인의 통일유훈

《김일성
1994.7.7.》

친필 아홉자
숨결로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거룩충고한 주석님의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받든 이인위천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인민으로부터 출발하는 평등사상
민족으로부터 출발하는 정치철학
조국광복의 태양
김일성주석님!
주체혁명의 태양
김정일장군님!
못걸디게 그리고 사무칠 때면
위대한 수령님들과 똑같은
인민사랑, 헌신, 책임감, 솔선수범
다정다감 책임감은 인민심정의 원수님!
혁명승리의 진두에서 칼바람 맞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품에 안겼습니다
주체사상의 나라 사회주의조선
통일대국, 민족의 운명으로
평화변명, 자주의 철충성으로
심장에 새긴 6.15통일겨레들
사계절의 봄은 한나산에서 오지만
민족사의 봄은 백두산에서 오는것을 보았
습니다
희망찬 새해 첫날, 세상에 발표된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육성신년사

평양올림픽을
지구촌평화올림픽으로 전환시키며
겨울철올림픽을
세계의 봄철올림픽으로 전환시키신
젊고 유능한 세계정치지도자
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의 밝고 환한 얼굴
오로지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북남지도자들의 담화
군사분계선 새들이 부르는 합창을 들었습니다
설레이는 나무와 숲들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2018.4.27만문점선언에
지구촌 76억이 놀라아 했습니다
12쪽의 평화구약과 성조기가 꽃핀
2018.6.12가포르조미수뇌회담
미합중국대통령 트럼프의 손을 맞잡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무위원장
21세기 세계사적변을 보았습니다
6.15통일겨레와 반제반전세계가
백두산칼바람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의평화를 실현한
백전백승의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받드는 영광의 대렬에 선 환희
아,
김정은국무위원장님!
당신께서 온 겨레의 운명입니다
아,
김정은원수님!
당신께서 온 겨레의 운명입니다
사무친 그리움으로 부르고 또 부릅니다

림영호

지난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서북단에 자리잡고있는 신도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곳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결사나운 배길과 험한 갈매길을 헤치시며 신도군을 찾으시니 그이께서는 여기에 오니 50여년전 이곳에 거룩한 발자취를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군에 깃들여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였다.

당시 풍랑사나운 바다길을 헤치고 비단섬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의 발목까지 빠지는 감랑길을 걸으시며 제방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한 방향과 갈매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방도를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간석지건설과 갈매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 위대한 수령님께서의 일군들에게 동무들은 아주 좋은 일을 하고있다고, 같은 우리 시대의 좋은 기념물이 라고, 후대들이 이것을 넘겨받으면 동무들을 두고두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하시였다.

사실 같이 화학섬유와 종이의 원료로, 서해안의 버림받던 섬과 간석지를 비단섬으로 뿜수 있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빛과 지도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전후 것처럼 어려웠던 그때 한 경북도의 어느 한 팔포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수령님께서의 원료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백양나무와 같이 기르기 쉽고 빨리 자라는 활엽수와 갈을 가지고 인견팔포

시험생산을 해보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다.

당시 백양나무나 갈에서 섬유를 뽑는 문제는 과학이 발전되었다는 나라들에서도 연구하다가 끝까지 성공하지 못한것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의 일부 사람들이 갈대에서 섬유를 뽑는다는데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있는것을 두고 자신께서는 갈에서 섬유를 뽑을수 있다는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연구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또한 서해안의 간석지를 찾으시어 끝없이 설레이는 간석지의 갈밭들을 바라보시며 같은 우리나라의 영리한 재부이라고, 수천년동안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던 저 갈밭들을 값비싼 《비단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또한 섬들의 지형과 섬과 섬사이의 간석지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고작은 몇개의 섬을 하나의 동륙으로 련결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천정보의 새땅에 모두 갈을 심어 만년대계의 믿음직한 원료기지로 꾸릴데 대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이처럼 수수천년 썰물에 씻겨 버림받던 이롭도 없는 무명평을 인민의 행복을 위한 화학섬유 원료기지로 전환시킬 구상을 안으시고 100여리 제방을 쌓아 섬들을 하나로 련결하여 수천정보의 갈밭을 조성하는 웅대한 대자연개조를 현명하게 이끌어주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에 의하여 조국의 지도우에는 《비단섬》이 새로 생겨나고 신도는 온 나라가 다 아는

대규모갈생산지조로 전환될수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현지지도하신 신도군갈종합농장 갈1분장 14포전을 찾으시어 갈에 의한 화학섬유생산을 활성화하자면 신도군을 대규모의 갈생산지조로 잘 꾸리고 갈재배를 과학화, 현대화하여 갈정보당수확고를 높이며 갈수송문제를 해결하여 공장들에 섬유유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신도군을 주체적인 화학섬유원료기지로 든든히 꾸리고 갈생산을 늘리는것은 우리 나라 화학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적국 도와주겠으니 갈농사를 잘 지어 최고수확년도의 기록을 정상화하고 앞으로 계속 갈재배를 안아오자고 하시였다.

갈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의 위대한 수령님들의 원대한 구상과 숭고한 뜻에 의하여 조국의 지도우에 새로 생겨나고 발전하여온 고장인 신도군을 전국의 본보기단위로 더 잘 꾸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켜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가 온 나라에 더욱 크게 울려 퍼지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이다.

인민사랑의 자욱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의 며칠전 삼지연군안의 여러 부문 사업들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면서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찾으시여서는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제시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땅에 감자밭을 높이 쌓아 량강도의 감자농사문제로 그토록 마음쓰신 장군님의 념원을 꼭 풀어드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시고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우리 나라 감자가공공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 대한 당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공장을 능력대로 만가동운영함으로써 당에서 마음먹고 꾸려온 공장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참담하게 이바지하는 공장으로서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의 삼지연군건설을 통하여 현대대명이 움추린 산간도시의 정령을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우리 나라 산간지대의 모든 군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과정이 지방건설에서의 일대 도약기로, 하나의 혁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끝없이 빛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인민생활은 날이 꽃피어나고있는것이다.

림영호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새로 생긴 67개의 좌석

주체 102(2013)년 11월 어느날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문화회관을 찾으시였다.

관람실에 들어서시어 관람석의 한 자리에 앉으신 그이께서는 문득 가운데 통로를 왜 이렇게 넓게 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였다.

관람실의 널찍한 가운데 통로는 공연관람때마다 책상과 의자등을 들여다놓고 일군들을 앉히기 위하여 남겨둔 공간이었다.

일군들에게 가운데 통로에 의자를 한 뒤쪽 더 놓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들이 문화정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도록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후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가운데 통로에 의자를 더 들여다놓아 회관관람석의 좌석이 67개나 새로 생겨났다.

먼저 관심하신 생활조건보장문제

몇해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북방의 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공장전경도앞에서 생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후생시설부터 먼저 돌아보자고 하시였다. 목욕탕에 이어 식당의 식사칸에 들어서시어 음료들과 빵의 맛도 보시며 음료와 빵을 더 잘 만들어 로동자들에게 공급하라고 이르신 그이께서는 주방칸에도 들어가보시였다. 주방칸의 온습도가 어떤가, 배수구는 어디에 있는가도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게 증기와 배수를 잘 뽑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합숙생들의 침실에도 들리시어 허리를 굽히고 바닥의 여기저기를 손으로 짚어보시며 난방보장조건을 알아보고 로동자들이 사용하는 모포의 질도 가능해보시였다. 공장을 떠나실 때에는 로동자들의 생활조건을 더 잘 보장해줄데 대하여 또다시 간곡하게 당부하시였다.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주시어

나라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 탁월한 군사적예지와 전략, 무비의 담력과 배짱, 비범한 평균술을 지니신 절세위인을 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무상의 행운이며 영광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탁월한 령도와 애국애민의 헌신으로 자위적국력강화의 최전성기를 마련하시고 공화국의 존엄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민족운명의 위대한 수호자, 회세의 천출명장이시였다.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행복, 평화와 안녕은 자위의 군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령당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의 국가의 근본리익과 정세의 요구에 맞게 독창적인 군건설사상과 로선들을 제시하시고 인민군대를 실천능력을 소유한 필승의 강군으로 만들어 국가방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방선의 최전선, 최전방초소들과 불비내리는 전투훈련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인민군대의 전투력완성과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그의 세련된 평균술은 무도의 영웅포병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명도서, 명사수운동에도 새겨져 있고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생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에도 어려웠으며 해군에서 인민군대의 첫 대병중대대가 배출되는데도 깃들여 있었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는 인민들의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심혈,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결구에서 마시령스키장, 톨라인민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 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등 수많은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사회주의바다항기, 과일향기가 차넘치고 교육과 보건, 체육 등 문명강국건설의 전반분야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인민대중계열주의가 철저히 구현되고 인민의 리익과 편익이 최우선, 절대시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신 사랑의 세계, 인정의 바다에서 전제 인민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살고있으며 령도자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강국건설에 애국충정을 다하고있다.

우리 인민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반만년 민족사에 국력이 최초로 강해지고 민족의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는 것이다.

력사적인 4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의 그 실천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공화국이 강위력한 힘을 지닌 불패의 나라로, 인민들이 자주적삶과 행복을 누리는 인민의 나라로 존엄떨치게 하는 원동력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장혜련

천출위인들의 문헌집 3 대륙인민단결기구에서 출판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로작들을 담은 문헌집을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에서 출판하였다.

문헌집출판식이 3일에 진행되었다. 발행식은 꾸바고등교육성 부상인 조선통일정치 꾸바위원회 위원장과의 무성, 혁명무력성, 꾸바 제인민간의

친선협회의 인사들, 3대륙인민단결기구 총서기 그리고 꾸바주재 조선통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등이 참가하였다.

3대륙인민단결기구 총서기 루르메스 세르반베스는 이번엔 출판된 문헌집은 제국주의자들의 암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며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잘 알수 있게 한다고 하면

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은 근면하고 고상한 정신을 지닌 인민이며 그 어떤 힘으로도 그들을 굴복시킬수 없다.

조선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결연히 투쟁하고있다.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한다.

본사기자

민족단합의 품은 품에 안아주시어 (11)

민족의 어버이의 품에 안겨

고향을 떠나서야 부모가 그리운줄 알게 되고 고국을 떠나서야 조국이 그리운줄 알게 된다고 하였다.

아무런 분별도 없이 너무 쉽게 그 품을 떠났던 최정렬녀인이 늦게나마 조국을 알고 민족을 알고 통일을 위해 사는 삶을 빛내일수 있는것은 못난 자식, 병든 자식 닻하지 않고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는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때문이다.

망국민의 실음을 안고 1912년 4월 량강도 해산에서 출생한 그는 리화너저 중학교를 중퇴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명치대학에서 법률과 미술을 공부하였다. 그후 고향에 돌아와 농민들속에서 반일계몽에 전념하던 그는 조국해방을 맞았다.

나라의 해방과 함께 그의 생활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고향에서 녀성들과의 사업에 참가하기도 하였고 함흥에서 교회사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그가 가릴치 못할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의 원자탄위협공갈에 걸을 먹고 흉남항에서 남으로 가는 배에 허겁지겁 몸을 싣었다. 이렇게 되여 그는 남쪽땅에서 살게 되었다. 생계를 위해 양복점을 운영하였고 그런 속에서도 새벽회 회장, 3.1녀성동지회 사업부장 등 시민사회활동가로 동분서주 하였다.

1971년에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해외에 살면서도 민족적정신을 간직하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였다. 하여 재미에국녀성동우협의회 회장,

조국통일북아메리카주협회 고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곁결에도 그러던 조국방문의 길에도 오를수 있었다.

조국방문은 그로 하여금 가슴아픈 민족적비극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통일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 전환점으로 되었다.

그는 1989년에 진행된 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추진대회와 다음해 8월 15일에 진행된 제1차 범민족대회를 비롯한 여러 통일회담들에 참가하여 민족의 통일의지를 온몸으로 체험하였다.

그러던 그는 1990년 4월 조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비롯한 여러 동무들을 만나시고 오찬도 함께 하시며 따뜻한 사랑과 정을 부여주시고 교육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찬석상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자료를 많이 가져 갔다. 그 소행을 높이 평가도 해주시고 나이에 비해 매우 정정하기때문에 앞으로 몇해동안은 더 활동할수 있을것이 라고 하시면서 해마다 조국에 오라고, 그러던 자신께서 잘 대접도 하고 이야기도 서로 나눌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날 최정렬은 그토록 숭앙해마지 않 는 절세의 위인을 몸가까이에서 만나뵈

고 삶의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가슴부듯 이 받아안았다.

민족의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최정렬은 1992년 4월 조국방문기간에 은정어린 80뉘생일상도 받아안았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보내 주신 생일상을 마주하며 그는 한 인간의 재생을 축복해주시고 애국의 길에서 여생을 계속 꽃피워나가기를 바라는 민족의 어버이의 숭고한 뜻으로 받아안고 여생을 통일애국의 길에 바칠것을 굳게 마음다졌다.

후날 그는 자기의 글 《우리 민족은 남다른 령수복을 지녔습니다》에서 이렇게 썼다.

《김정일장군님의 품은 김일성주석님의 품입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은 어제도 오늘도 남다른 령수복을 지녔습니다. 김일성주석님 그대 로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대를 이어 민족의 령수로 받들어모시어 우리 민족의 장래는 확실하게 담보되어있습니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매혹과 흠모는 백비의 자각과 투지를 낳았고 최정렬로 하여금 생을 빛나게 장식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백발의 늠로한 품에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하여 《조국통일》, 《조선은 하나다!》라고 웨치며 통일주로를 누벼가던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오늘도 남아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채택발표로 북과 남사이에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열렸다. 이런 속에서 지금 북남사이에는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북남장령급군사회담, 북남적십자회담, 북남철도협력분과회담, 북남산림협력분과회담, 북남농수산협력분과회담 등 부문별 회담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회담들에서는 각기 공동보도문들이 채택되었다. 얼마전에는 평양에서 북남통일통구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어 민족의 자주통일열기를 더욱 드높였다.

오늘 북남관계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사변들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자주

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해 공화국이 기울여온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의 신년사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 주시라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대 전환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절세위원의 뜻을 받들어 공화국은 새해정초부터 북남사이의 화해와 관계개선을 위한 주동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였다.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

회를 민족의 대사로 여기고 잘 도와주기 위해 공화국은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등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여 북남관계개선을 추동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고 남조선대통령을 만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그이의 뜻을 구두로 전하였다. 남조선대통령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올림픽에 북측고위급대표단이 참가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친서와 구두인사까지 보내주시게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공화국은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폐막식에

고위급대표단을 또다시 파견한데 이어 남조선에서 진행된 겨울철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에 대표단과 선수단을 보내어 변함없는 북남화해와 관계개선의지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지난 3월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에 온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성원들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북남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과의 대화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것이 공화국의 일관하고 원칙

적인 립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거듭 천명하시었다.

대결과 분렬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4.27판문점선언이 발표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민족애와 드림없는 민족자주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새로운 역사적시대의 자주통일강령이다.

북과 남이 판문점선언에 밝혀진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갈 때 민족자주통일의 역사적위업은 앞당겨 성취될것이다.

리성심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 노래 《통일 6.15》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 노래에 《통일 6.15》(곽철 작사, 안정호 작곡)도 있다.

우리가 맞고보면 수많은 날과 날중에는 겨레가 환희속에 뜨겁게 맞은 6.15 가슴아픈 분단장벽 보란듯이 가셔버릴 우리 민족 의지비긴 통일 6.15

강요된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긴긴 세월 끊어졌던 겨레의 혈맥을 잇고 우리 민족 힘을 합쳐 하나로 뭉친 6.15 부강하고 외세없는 자유로운 내 조국 땅 후손만대 물려줄 통일 6.15

삼천리강도는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으며 온 겨레는 6.15의 기치밑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반통일의 역풍속에서도 온 겨레가 굳건히 지켜오고 실천해온 6.15는 마침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탄생으로 이어졌으며 6.15의 감동은 오늘날 4.27의 환희와 격정으로 뜨겁게 분출하고 온 민족을 5.26의 거대한 열광으로 들끓게 하고 있다.

판문점선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우리 시대의 자주통일강령이며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선언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지 오아니던 70년이 넘었다. 너무도 오랜 세월 분렬의 비극과 고통을 겪어온 우리 겨레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루빨리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이 이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나간다면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우리 겨레는 앞으로도 통일열기를 북돋아주는 노래 《통일 6.15》를 더욱 힘차게 부르며 판문점선언을 하루빨리 리행하여 조국통일의 밝은 새 아침을 기어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6.15. 참으로 통일의 열기가 강산에 차넘치고 누구나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가슴설레임에 당장이라도 원한의 콩크리트장벽이 무너지는것만 같아 잠 못 들던 감동적인 날이었다.

이 날 북남사이에서 여러 갈래의 대화, 교류와 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장장 반세기동안 끊어졌던 국도와 민족의 혈맥을 이어놓았으며 각종 통일행사들도 진행되어 겨레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이러한 시대적배경속에서 태어난 노래 《통일 6.15》는 창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통일행사장들에서 수많은 불리워져왔다. 노래는 우리 민족의 간절한 통일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6.15북남공동선언을 통일의 리정표로 삼고 리행해나가야 한다는 사상주제적내용을 가사에 담아 겨레의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있다.

노래의 구절마다에는 통일 열기를 예레가 갈구해온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을 뜨겁게 맥박치고있으며 외세에 의

통일조국 리정표를 번듯이 세워왔으니 통일축포 울릴 날도 이제 멀지 않았네 온 세상이 부러움에 아름다운 3천리길 걸이걸이 노래하자 통일 6.15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어 통일의 리정표가 마련된 조건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이 6.15시대에 통일을 대하는 우리 민족의 관건이고 의지였다.

통일은 바라기만 해서 되는것이 아니라 오직 통일을 위한 줄기찬 투쟁만이 통일의 날을 당겨올수 있다.

《통일 6.15》, 노래의 제목에도 어려웠던것처럼 6.15는 통일이고 통일은 6.15이다.

지금으로부터 18년전 6월 민족분렬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민족사의 일대 사변이였다.

역사의 이날을 시작으로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통일통구경기개막식

화해와 단합의 벽천을 넘겨 줄 열매를 안아 보며

한여름의 더위가 강산을 달구지만 우리가 찾은 창광원수영장은 시원한 물속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우리가 경기장으로 들어갈 때 도 손마다 《반갑습니다》라며 손을 흔드는데 모습이나 절절히 이 가슴에 파고들던지...

정국성: 장에자아시아경기대회가 개막되고 우리 선수단이 경기장을 떠날 때에도 얼마간 혼자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객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여지기 아쉬워하며 우리를 향해 열심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 모습을 보며 오늘은 비록 헤어지지만 통일의 그날 꼭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확신을 안고 우리도 손을 흔들었다.

심승혁: 아직도 얼굴이 기억에 생생한 한 운전사가 있다. 내가 숙소에서부터 경기장으로 타고난 차는 장에자들이 삼륜차를 타고도 얼마간 혼자서 오라내릴수 있게 되어있는 차였다. 그러나 그 운전사는 내가 차에 오르내릴 때마다 뒤에서 밀어주고 비가 오면 비옷을 씌워주면서 통일이 되면 자기 집에 놀러오라고, 자기한테도 내 나이포대의 조카가 있다고 정답게 말하였다.

경기대회가 끝나고 우리 선수들이 비행장으로 향할 때였다. 우리를 태운 배스가 다리우를 달리고있었는데 가슴이 찢어질수정선 너머를 바라보느라 너무도 오랜 세월 멀어져사는 우리 겨레가 서로 일사단결을 통일의 그날은 과연 언제일지 가슴이 눈물이 앞을 가렸다.

내 자신이 불구의 몸이라

가 강산을 달구지만 우리가 찾은 창광원수영장은 시원한 물속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우리가 경기장으로 들어갈 때 도 손마다 《반갑습니다》라며 손을 흔드는데 모습이나 절절히 이 가슴에 파고들던지...

정국성: 장에자아시아경기대회가 개막되고 우리 선수단이 경기장을 떠날 때에도 얼마간 혼자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객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여지기 아쉬워하며 우리를 향해 열심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 모습을 보며 오늘은 비록 헤어지지만 통일의 그날 꼭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확신을 안고 우리도 손을 흔들었다.

심승혁: 아직도 얼굴이 기억에 생생한 한 운전사가 있다. 내가 숙소에서부터 경기장으로 타고난 차는 장에자들이 삼륜차를 타고도 얼마간 혼자서 오라내릴수 있게 되어있는 차였다. 그러나 그 운전사는 내가 차에 오르내릴 때마다 뒤에서 밀어주고 비가 오면 비옷을 씌워주면서 통일이 되면 자기 집에 놀러오라고, 자기한테도 내 나이포대의 조카가 있다고 정답게 말하였다.

경기대회가 끝나고 우리 선수들이 비행장으로 향할 때였다. 우리를 태운 배스가 다리우를 달리고있었는데 가슴이 찢어질수정선 너머를 바라보느라 너무도 오랜 세월 멀어져사는 우리 겨레가 서로 일사단결을 통일의 그날은 과연 언제일지 가슴이 눈물이 앞을 가렸다.

내 자신이 불구의 몸이라

는 가슴속아픔보다도 민족분렬의 아픔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노래 《다시 만났습니다》를 조용히 불렀다.

그때로부터 4년이 되는 지금 역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4.27선언이 발표되어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활짝 펼쳐졌으니 막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올해에 장에자아시아경기대회가 또 진행되게 되는데 우리는 장에자수영장종목에 참가하게 된다.

북과 남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장에자아시아경기대회가 우리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다시금 온 세상에 떨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해주는 또 하나의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길금순

출발점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일이 처음 시작되는 점을 의미한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며 갈라진 조국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할데 대한 새시대의 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출발점으로, 기초로 된다.

민족자주의 민족문제해결의 행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자주를 떠나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과 통일번영에 대해 말할수 없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 통일되어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

조국통일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

다.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할 때에만 우리 민족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주동력으로, 결정적력량으로 될수 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

다. 그런것만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북과 남사이의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겠는가 하는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평화통일은 우리 겨레가 지니고있는 한결같은 념민이다.

조국통일이 평화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 난다면 민족적재난을 피할수 없다.

북남관계는 하나의 괴짜를 이은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 동족사이의 관계이

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놓고 동족끼리 서로 싸워야 할 근거가 없다.

북과 남이 서로 싸우면 전쟁의 참화를 입는것은 우리 민족이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외세이다.

북과 남은 이미 7.4공동성명을 통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그를 계승한 조국통일의 새로운 리정표인 4.27판문점선언도 바로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자주통일선언, 평화통일선언이며 민족대단결선언이다.

은 겨레가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갈 때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앞당겨 성취될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통일문제 해결의 출발점

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수도 없다.

조국통일의 주체가 우리 민족자신인것만큼 조국통일문제는 마땅히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주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그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다.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할 때에만 우리 민족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주동력으로, 결정적력량으로 될수 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

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놓고 동족끼리 서로 싸워야 할 근거가 없다.

북과 남이 서로 싸우면 전쟁의 참화를 입는것은 우리 민족이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외세이다.

북과 남은 이미 7.4공동성명을 통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그를 계승한 조국통일의 새로운 리정표인 4.27판문점선언도 바로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자주통일선언, 평화통일선언이며 민족대단결선언이다.

은 겨레가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갈 때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앞당겨 성취될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날로 높아가는 평화수호투쟁의 목소리

남조선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과 조선반도의 평화수호를 위한 대중적투쟁들이 련일 벌어지고있다.

이러한 속에 지난 4일 서울에서는 50여개의 로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판문점선언위원회》를 결성했다. 8.15추진위원회는 이날 대표자회의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1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판문점선언실현, 8.15자주통일 범국

민대행진》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8.15대회가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합의를 통해 현실로 다가오는 《평화, 통일》의 새시대》를 지향하는 대중적열망을 결집하는 장이 될것》이라며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고 모든 국민의 8.15축제로 만들기 위해 미군없는 조선반도실현, 종속적 《한》 미동맹을 자주의교로 전환, 《보안법》 폐지가 실현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815명의 합창단이 통일노래를 부르는 《815대합창》, 《평화통일박람회》, 미군없는 《한》 반도실현을 위한 《통일선봉대》, 국제연대사업 등을 진행하며 특히 정전협정체결일인 7월 27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전쟁은 끝났다. 평화의 새시대를 열자》라는 주제의 《7.27중전의 날》대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교원들의 로동3권보장을 요구

남조선인테레트신문 《민 플러스》에 의하면 6일 전교조가 청와대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당국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인 전교조에 대한 범외로조정에 대한 범외로조정을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전교조에 대한 범외로조정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범외로조라는 족제를 채워놓고서는 로동존중 《정권》이라고 할수 없다고 까뻐했다.

그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로동을 존중하도록 하는것이 진짜 로동존중 《정

권》이라고 하면서 범외로조정을 철회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인 전교조에 대한 파괴행위를 바로잡지 않고 로동존중사회를 말하는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당국이 전교조를 인정하는 날 까지 교원들의 로동3권쟁취를 위해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당국의 처사에 항의하여 40명의 전교조성원들이 집단사발을 하였다.

본사기자





제힘으로 훌륭히 꾸린 선경마을

* 서흥군 법안리를 찾아서 *



만경산기슭을 감돌아 흐르는 서흥강의 물길을 막아 건설한 발전소며 뒤산의 과일나무들, 넓은 벌판에서 키돋음을 하는 푸른 벼모들, 산기슭에 자리잡은 양어장에서 철갑상어며 칠색송어와 같은 맛좋은 물고기들이 이곳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번듯하게 꾸려놓은 법안리에서 우리가 본 풍경이었다.

마을의 생김새가 마치 날아오르는 기러기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법안리라고 부르는 이곳이 또다시 몰라보게 변모되어 새 생활의 랑만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도시의 문화후생시설 못지 않게 훌륭히 꾸려진 법안원이며 큼직한 부지를 타고앉은 번듯한 학교, 도시와 멀리 떨어져있건만 병치료에 필요한 갖가지 의리기구들과 입원실이 갖추어진 리인민병원은 말그대로 나날이 향상되어가고있는 문화농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지난날 논농사도 제대로 할수 없어 척박한 고장이라고 불리워오던 이곳이 오늘 래일에 대한 희망과 보람찬 생활의 랑만이 넘쳐나는 선경마을로 전변되게 된데는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과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 46(1957)년 5월 이곳을 찾으신여 땅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며 조합(당시 서흥군 새리농업협동조합)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샘물을 보시고 이렇게 찬물을 직접 눈에 대면 벼가 령해를 받아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양어장을 건설하여 찬물에서 잘 자라는 칠색송어와 기뻐어와 같은 물고기들을 기르고 양어장에서 더워진 물을 눈에 대면 논농사에도 좋고 인민들이 사철 물고기를 먹을수 있게 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90(2001)년 7월 훌륭하게 꾸려진 법안리를 찾으시어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 사회주의선경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할시면서 이곳 농장원들의 보다 즐거운 문화정서생활을 위하여 온정어린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이곳 주민들은 절세위인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규모가 큰 양어장도 건설하고 나지막한 야산들에는 수종이 좋은 과일나무도 심었으며 서흥강의 물길을 막아 발전소를 건설하였다. 법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집집마다에 흘러들어 오늘도 그 덕을 토틈히 보고있는 법안리주민들이다.

정광명 법안협동농장 제1작업반 반장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밤도 지어먹고 난방도 보장한다고 말하였다. 쉬임없이 울리는 발전기들의 동음소리는

생활의 랑만과 기쁨넘친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려주는것만 같았다.

이윽하여 우리는 아이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마음껏 자랄수 있도록 온갖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법안리와 유치원에도 들리었다. 이곳에서 만난 전급회농장원은 첫머리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쉽게 오고갈수 있는 포진가까이에 탁아소며 유치원을 건설한것이 무엇보다 좋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법안리사람들이 즐겨 찾는 법안원에도 들리었다. 원통식으로 지은 법안원의 흠에 들어선 푸른 파도 설레이는 바다가 풍경이 시원하게 안겨주고 무더운 여름철에 몸을 식히고 피곤을 풀수 있는 시원한 물놀이장도 꾸려져있었다.

농장의 관리위원장은 이제 가을이 오면 마을의 풍경은 더 볼만 하다고 하면서 황금익삭 설레이는 벌판과 탐스럽게 익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린 뒤산의 파수원, 물고기가 뛰어번지는 양어장을 한쪽의 멋진 그림과 같다고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농민들도 도시사람들 못지 않은 훌륭한 생활조건을 누리며 하시려고 농촌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모습과 자기의 행복을 제 손으로 창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온 이곳 주민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본사기자 강류성



누가 나에게 자기의것으로 나날이 흥해가는 조국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선참 《소나무》책가방에 대해 말해줄 것이다.

물론 몇몇사이에 조국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척척 만들어내고있는 지하전동차며 경비행기, 트랙터, 자동차, 고기배를 비롯하여 큼직한 자랑거리의 셀수 없이 많다.

하지만 자식을 둔 녀성으로서 조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속에서 인기있는 《소나무》책가방이 무엇보다먼저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해야 할것이다.

꼭같은 교복차림과 대조를 이루며 동심에 맞게 그려진 소년장수며 명리한 너구리를 비롯한 그림들과 《소나무》상표표 붙인 멋쟁이 새 가방을 메고 어깨동무 나란히 등교길에 오르는 소학교 학생들의 발달한 모습은 정말이지 인상적이었다.

작고도 큰 메아리로 나를 감동시킨 《소나무》책가방이다. 그것은 이 책가방 하나에서도 자기것에 대한 긍지를 안고 살아가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을 알수 있기때문이었다. 그것을 나는 평양가방공장을 돌아보면서 더욱 절감하였다.



《소나무》책가방이 말해주는 것은

대동강반의 통일거리에 위치한 평양가방공장은 학생가방과 일반가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능력이 크고 현대적인 가방생산기지이다. 공장은 외형부터 특색이 있고 주변환경도 깨끗하여 정신이 맑아지게 하였다.

공장의 한 일군은 이 공장에 깃들여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다심한 령도의 손길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가방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학생가방도안들도 보내주신

그이께서는 2017년 새해의 뜻깊은 첫 현지도의 자욱도 평양가방공장에 새기셨다고 한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공장이 일떠선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벌써 가방사태, 가방풍년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일떠세운 공장에서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가방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별세상에 와본것 같은 오늘을 잊지 못할것 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는것이였다.

결말 안이라고 공장은 안팎으로 멋있었다. 우리 일행은 먼저 1층에 꾸려진 제품전시실부터 돌아보았다. 견

본실에는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각각색의 학생가방들이 진렬되어있었는데 학생들의 취미와 기호, 나이별 특성에 맞게 잘 만든것으로서 절로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러 우리는 공장의 과학기술보급실과 생산경영활동을 통합적으로 지휘조종하는 통합조종실을 돌아본 다음 도안창작성에도 들렀다.

《우리는 도안창작과 투영기능을 다같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리용하여 대사람들이 창작한 도안들을 놓고

합평회도 진행하고 설계에서 제기될수 있는 기술적문제들도 토의하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단축하고있으며 동시에 정확성, 신속성도 보장하고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가방을 만드는 생산현장으로 걸음을 옮기는 우리 일행에게 동행한 일군은 공장의 재단과 재봉, 인쇄, 날염,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공정들마다에 레이자재단기를 비롯하여 제힘으로 만든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르히 갖추어져있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돌아본 재단작업장에서는 레이자재단기로 가방편을 재단하고있었는데 기대공이 조각단추를 한 번 누르기만 하면 깎아낸 형태로 재단되는 모습이 참으로 볼만 하였다.

재봉작장에 들어서니 《제품 하나에도 어머니된 심정을...》, 《우리의 심정이 높뛰는 한》이라고 적혀진 속보들이 눈에 띄우고 산뜻한 작업복을 입은 녀성로동자들이 정색에 일손을 놀리며 기대를 돌리고있었다.

마감공정에서는 기대공들의 정성이 깃든 학생가방들이 련이어 쏟아져나오고있었다. 가방의 모양과 질이 나무랄

데가 없었다. 동행한 일군은 가방에 붙은 《소나무》상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치 태어난 아기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 이름을 달아주려 마옵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고르고달라 달아주시는 이름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소나무! 무엇이랴 말할수 없는 뜨거운것이 심금을 울리었다. 소나무는 조신의 국수이다. 그 푸르고 역센 기상처럼 나라의 꽃봉오리들이 자기것이 제일이라는 자존심을 빼대처럼 굳게 간직하고 소나무처럼 굳세게 자라기를 바라시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깊은 뜻이 어려와서였다.

정말이지 걸을 봐도, 안을 봐도 남의것이 조금도 부럽지 않을 《소나무》책가방이였다.

동행한 일군은 이제 이 가방안에 우리의것, 우리가 만든 질 좋은 민들레학습장이며 필갑, 수지연필, 크레용, 지우개, 자, 색종이를 비롯하여 갖가지 학습품들이 채워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나는 완성되어 나온 《소나무》책가방 하나를 소중한 보물인양 손에 들이보았다. 손에 감수되는 가방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무게는 실로 무거웠다. 가방의 모양과 질이 나무랄

것에 대한 긍지, 자기것을 사랑하는 의미가 너무도 무겁게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다.

그날 평양가방공장을 나서는 나의 마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것으로 더욱 강해지는 조국의 기상에 대한 격정으로 부들부들하였다.

어찌 이 공방뿐이겠는가. 평성시와 사리원시, 강계시, 해산시, 해주시를 비롯한 전국도처에 학생가방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가방공방들이 일떠서 질 좋고 맵시있는 가방들을 많이 만들어 학생소년들에게 공급해주고있다.

은 나라 방방곡곡에 현대적인 공장과 거리가 보란듯이 일떠서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세계적인 명제품, 명제품들을 만들어내고있는 조국의 현실.

참으로 밝고밝은 땅이다. 조국인민들 누구나 사랑하며 즐겨부르는 노래, 이제 내 입가에도 자연스럽게 오르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한구절이 절로 흘러나왔다.

... 우리 힘 꺾을자 그 어데 있노라 풍광도 무섭지 않네 백두의 뉘를 이어 빛나는 내 조국 두름들라라 ... 재중동포 김영희





묘향산의 이선남폭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표충비

개성시 선죽동에 있는 표충비는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충절을 찬양하여 조선봉건 왕조의 왕들이 세운 것이다. 비각안에 두개의 비중 북쪽의 것(높이 3.17m)이 1740년 영조(통치기간 1725—1776)가 세운 것이고 남쪽의 것(높이 3.58m)은 1872년 고종(통치기간 1864—1907)이 세운 것이다. 두 비석은 같은 짜임새인데 비각, 거북기받침과 비몸, 비머리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서 비몸만 거무스레한 대리석이고 나머지는 다 화강암의 화강암을 다듬어 만들었다. 표충비의 비각은 넓직한 대돌로 만들었다. 거북기받침은 10이 넘는 통돌로 거북기조각을 한 것이다. 거북기조각은 발을 힘있게 디디고 목을 숙 내린 모습이 릉름하게 잘 형성되었다. 길다란 목, 특 튀어나온 눈, 크게 벌린 아가리, 앞으로 오그라든 뺨쪽한 4개의 큰 앞이, 균형잡힌 어금 이, 옆으로 나온 배에 새긴

선들, 힘있게 디딘 4개의 발과 그 발들, 균형이 잡히면서도 두껍고 큼직한 잔등, 목부분의 힘있고 굽직한 선들은 거북기의 굳센 기질과 특징적인 자세들을 유감없이 나타내고있다. 특히 거북기 등딱지무늬와 뿔모양의 비몸자리들은 높은 조각기교를 보여준다. 결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비몸에는 정몽주의 절개를 찬양하는 비문이 오목새김되어 있다.



본사기자

몸 단련의 묘리

—몸단련은 운동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이면서 꾸준히 해야 한다. —운동하기 전과 후의 식사에 대하여 주의를 돌려야 한다. —몸단련은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준비운동, 늘리기운동이 몸단련운동의 전제조건이다. —휴식도 운동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동작을 오래동안 하면 몸에 점차 적응성이 발생하여 몸발달에서 침체가 나타나게 되므로 부단히 동작형식과 방법을 바꾸어 가장 좋은 운동효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시내 한복판의 바다물수영장

얼마전 우리는 평양의 보통구역 운하동지구에 자리잡은 운하바다물수영장을 찾았다. 굵이굽이 흐르는 강줄기를 형성한 수영장은 물이 어찌나 맑은지 밑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바닷물이 저렇게까지 맑던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수영장바닥이 얇은줄만 알고 성큼성큼 들어서다가 깊이 빠져드는 바람에 혼썰나는 축들도 있었다. 그에는 아랑곳없이 물결을 쪽쪽 헤가르며 헤엄을 치는 청년들, 얇은 곳에서 부드러운 바닷물에 몸을 맡기게 만 시름을 놓고있는 노인들, 작은 발동선인듯 구명대에 올라 물장구를 요란스레 쳐대는 꼬마들의 모습도 볼만 하였다.

이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우리는 일방목 실로 향하였다. 채광이 좋은 천정유리로 둘러싸인 해빛에 달아오른 모래밭은 무더운 여름날의 동해바다를 모래밭을 방불케 하였다. 진짜 동해기슭의 모래를 날라다 편것이라고 하였다. 모래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바닷물이 인체에 어떻게 좋은가 하는 론의를 벌리고있었다. 들어보니 그럴듯 하였다. 바닷물은 특이한 화학적 및 생물학적성질을 가지고있는 복합물이며 전해질용액으로서 사람의 세포액의 조성 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건강에 매우 좋다.

어느 한 나라의 생리학자는 바닷물이 사람의 피와 비슷한 성분으로 되어있다는 자료를 발표하여 사람들을 놀라웠다. 한 체육선수가 경기도중에 팔절된 다리를 바다물치료법으로 완치하고 다시 경기장에 나타난 체육일화도 있다. 바다물수영을 하면 비만증을 없애고 류마치스나 여러 가지 질환환자들의 치료효과를 한결 높이며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등등 모두가 바다물자랑이야기들이었다. 무더운 여름날에 시내의 한복판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의 해수욕에 비친 문명강국의 래일을 그려보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현은경

강원도 원산시 갈마반도의 남동쪽 바다가속에 있는 명사십리는 동해안의 명승지 중의 하나이다. 원산만으로 뻗어나간 갈마반도의 모래

고양어 오늘의 갈마반도로 되었다. 명사십리의 북쪽 끝부분은 해발높이 100m안팎의 구릉으로 되어있다.

모감주나무(무환자나무과)의 잎지는 넓은잎나무가 있다. 모래밭에는 해당화가 무리져 자라고있다.

동해의 명승 - 명사십리

길이가 십리나 되는 이름난 모래밭이라 하여 명사십리라고 부른다. 오랜 세월 남대천(안변)이 날라는 화강암절벽에 바다물결의 작용에 의하여 쌓이

이 구릉의 바다쪽기슭은 바다바탕으로 되어있고 그 주변에는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가 자라고있다. 명사십리의 첫 입구에는 동해안지역에서 보기 드문

바다기슭을 따라 흰 모래밭에 붉은 소나무, 사철 출렁이는 동해의 물결, 이 모든것이 조화되어 명사십리의 풍치는 아름답다. 본사기자

국립민속박물관

특색있는 민족로리 - 권골

전골은 고기, 물고기, 닭, 새 등 음식들을 넣고 국물을 조금 부어 끓여 먹는 로리이다. 전골은 고유한 민족특성을 가진 로리로서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것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원래 전골이라는것은 뼈를 끓인다는 뜻인데 흔히 사람들은 이 뼈 만들어놓은 음식을 다시 끓인 음식이라는 뜻으로 리해하여왔다. 전골음식이 생겨나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옛날 고구려군사들이 며칠째 후방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적을 반대하여 치열한 전투를 계속할 때의 일이다. 군량은 다 떨어지고 먹을것이랄 몇몇 군사들에게도중식사로 가지고 떠난 음식이 얼마간 남아있었음뿐이었다. 그것마저도 차고 굶어

생각에 전투에서 쓰는 전립(지금의 철갑모와 같은것)에 음식을 모아넣고 끓이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에 배고픔을 참지 못한 군사들이 익는죽을 골라 먹었다. 그 맛이 하도 별맛이어서 그후에도 그런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그때로 부터 그 음식의 이름을 권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봉건왕조 시기의 《시의방》에 전골을 만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는것으로 보아 그것이 오래전부터

이름난 민족로리로 발전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전골은 사람들에게 준비된 전골감과 냄비, 풍로를 주어 자체로 끓여먹게 할수도 있고 끓여서 줄수도 있다. 전골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재료를 따라 소고기전골, 닭고기전골, 낙지전골 등으로 나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단편소설 령마를 길들인 소년 (1)

글 황원철, 그림 김영희

1 《아뢰오! 아드님을 모시고 무술훈련장에 가있는 군사 우재 찾아왔소이다.》 시종이 들어오며 웨치는 소리에 단상에 앉아있던 박달죽장 환웅의 눈섭이 꿈틀 놀라며 일어섰다. 《우재가 나물? 그대 무슨 일이라드냐?》 “그건 알수 없사는데 다만 죽장님께 꼭 여쭙 말이고 하더이다.》 “응?” 박달죽장의 왁자차리 같은 두눈섭이 또 한번 꿈틀했다. “그럼 이리 들어오라구 해라.》 “예잇. 알겠소이다.》 시종은 허리를 굽신하더니 밖으로 나갔다. 그가 사라진쪽을 바라보던 죽장 환웅은 가슴에 까닭모를 불안감이 서려드는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나이가 지긋한 우재는 환웅이 자기의 아들인 어린 단군을 무술훈련장으로 보낼때 호위군사 겸 시종군으로 같이 달려보냈던 환웅이 가장 총애하는 군사이다. 이제 11살인 어린 단군이 심산속의 훈련장으로 무예를 익히러 떠나간지도 어언 1년. 그간 무술훈련에 전념하는 아들도 그리하지만 그를 시종드는 우재의 고생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라는것을 환웅은 잘 알고있었다.

우재는 밤이면 밤대로 단군의 신변을 지키느라 피카 새우고 낮이면 낮대로 단군의 잔일을 거들어주고 때로는 그의 무술훈련상대가 되어주느라 갖은 고생을 다했다. 그러면서도 언제 한번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정직하고 성실한 군사였다. 우재는 열흘간격으로 한번씩 단군의 식량과 생활도구들을 가져가려고 훈련장에서 내려와 성안으로 들어오곤 했다. 우재가 올 때마다 환웅은 그를 직접 만나 사랑하는 아들의 소식을 묻고싶었으나 그 감정을 애써 억제하곤 하였다. 종족의 대사를 주관하는 자신이 부하들앞에서 아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죽장의 위엄을 상하게 하는것이라고 생각했고 보다 중요하게는 자신의 행동이 어린 단군에게 어떤 나약성을 심어주지 않는가가 우려했다. 어린 단군이야말로 앞으로 자기의 뒤를 이어 종족을 보다 강성하게 빛내이고 미래요, 자신의 온 빛이 된다. 단군이 장차 그러한 대임을 떠메고나가자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지모와 체모를 지녀야 했다. 하기에 환웅은 사랑하는 자식을 곁에 두고싶은 혈육의 정을 억누르고 결연히 단군을 먼 곳의 심산속 훈련장으로 떠

나보낸것이 아닌가. 단군을 바래우며 환웅은 이 세상의 누구도 따르지 못할 뛰어난 무예를 소유하기 전에는 절대로 예비를 찾아 돌아올 생각을 말라고 엄하게 일렀다. 설사 그것이 10년, 아니 그보다 더한 세월이 걸릴지라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환웅은 단군이 자신의 이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깨

는 전에 없이 죽장을 꼭 만나겠다고 찾아왔던것이다. 이윽고 출입구에 친 천자 락이 번갈아 제끼지더니 환웅이 아들만큼이나 그리워하던 군사 우재가 벌벌떨어 지를 쓴 모양으로 벌벌떨며 네발걸음을 하며 기어들어왔다. 그 모습을 보는 환웅의 가슴은 철렁해났다. 죽장에게 죽을 죄를 짓고 스스로 벌을 청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취할수 없는 행동이었던것이다. 환웅의 반가운 심정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내 아지 너에게서 자초지종을 듣지 못했거늘 이 무

그제야 우재는 겨우 고개를 반쯤 쳐들고 떠들떠들 말을 때였다. 《소인이 불민화와 죽장님의 아드님을 잘 모시지 못하였사옵기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아드님께서 현일 자정이 넘은 새벽이면 훈련장을 떠나 홀로 어딘가 가셨다가는 아침때가 지나서야 이슬에 함복 젖으신 몸으로 돌아오시곤 하옵나이다. 그렇다고 하여 낮에 무예 훈련을 소홀히 하시는것은 아니옵고 오히려 이점보다 더 강심스레 훈련에 열중하시는데 아드님께서 귀중한 우재를 그렇게 혹사하시는 것을 보는것이 소인으로서 는 또한 더없이 죽고싶도록 괴롭고 안타까운 일로소이다. 그래서 소인이 아드님의 발밑에 엎드려 밤마다 어디로 가시는가고, 꼭 가셔야 할 일이면 소인도 함께 데려가주십사 하고 아무 리 말리고 애원해도 아드님은 그냥 가시옵나이다.》 “어허. 이 무슨 피이한 일이고. 내가 너희들을 굳이 집을 떠나 멀리로 보낸 것은 단군은 모든 잡념을 버리고 무예를 닦는데 전심전력 하고 우재 너는 단군의 생활을 보살펴주고 신변을 지키라 함이었는데 단군이 밤마다 어디로 가며 너는 또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있다니. 변괴로다.》 환웅의 놀렘과 실망은 컸다. 우재는 감히 환웅의 얼굴을 쳐다볼수 없어 머리를 들지도 못한채 여주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아드님이 가시곤 하는 곳의

군방은 알아냈사옵나이다. 이제 밤 소인이 무덤하게도 아드님의 뒤를 따라가본즉 아드님은 틀림없이 청계골로 들어가더이다. 그담은 워낙 야밤이라 산중에서 아드님의 모습을 더는 찾을길이 없었나이다.》 “청계골?》 환웅은 다시 한번 놀랐다. 청계골은 죽장인 자신이 얼마전부터 사람들의 출입을 엄금시키라고 명을 내린 골짜기였던것이다. (그럼 단군이 혹사? 아니. 외진 산중의 훈련장에만 박혀있는 그 애가 청계골의 사연을 알수 없지.》 환웅은 부지불식간에 떠오르는 생각을 물리치며 우재에게 물었다. 《단군이 청계골에 왜 가곤 하는지 너는 짐작되는게 없느냐?》 처음보다는 한결 낮아진 죽장의 음성이었으나 웬일인지 우재는 갑자기 온몸을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한참만에 그는 울먹울먹한 소리로 애원하듯 말했다. 《아이고 죽장님. 소인이 백번 죽어 마땅하옵나이다. 실은 제가 전번에 성안에 들어왔다가 시종에 나도는 신기한 명마에 대한 소문을 얻어듣고는 미련하게도 그 애기를 무술훈련에 전념하시는데 아드님께 읍졌사옵나이다. 지금 생각하옵네 도련님은 그담부터 청계골에 드나드시기 시작할줄로 아옵나이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사오니 소인에게 벌을 내리소서.》 《너는 우재군사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박영호는 해방전에 《번지없는 주막》을 비롯하여 수많은 계몽가요가사들을 창작한 이름난 작가이다. 1911년 강원도 통천군에서 태어난 그는 원산에서 성장하면서 문학공부를 열망하였으나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독학으로 대학과정을 마치었다. 1920년대말부터 카프에 관계하면서 연극 《눈먼 동생》, 《너는 미치지 않지만》 등 작품들을 내놓았으며 1930년대초부터 많은 대중가요가사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작품들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번지없는 주막》, 《작사랑》, 《무너진 황성》, 《울어라 문공지》 등과 같이 나라를 빼앗긴 실연과 울분, 리별의 아픔을 담은 비가들과 《종착도는 고향》, 《고향은 부른다》, 《꽃피는 루지》 등 조국과 고향에 대

한 그리움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다. 박영호가 가사를 쓴 계몽가요들은 나라 잃은 겨레의 설움과 울분에 대한 유익적인 서정토론을 통하여 빼앗긴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일제에 대한 항거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으며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저주와 울분의 감정을 절절하게 반영하였다. 박영호는 대중가요가사창작에 정력을 쏟아붓는 한편 남인수, 고운봉 등 재능있는 신인가수들을 발굴하여 가요계에 내세우기도 하였다. 8.15후 남조선에서 겨레와 민족을 위한 진정한 문학을 해보려고 암중모독을 하던 박영호는 1946년 12월 공화국의 품에 안겼다. 그는 갖 조직된 북조선연극동맹 초대위원장을 하면서 여러편의 연극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본사기자

유모아

귀의 기능

심리의사가 환자의 심리진강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물었다. 《가령 당신의 왼쪽귀를 베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잘 듣지 못하겠지요.》 《다시 또 오른쪽귀마저

베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소?》 《그럼 전 아무것도 볼수 없지요!》 의사는 놀라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건 왜요?》 《안경을 걸수 없으니까요.》